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지침 (Part 4)

- 설교(Preaching)

By W. L. Breidenhof

trans. by Seok-Jun Yun

W. L. Breidenhof는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랭글리(Langley)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동사목사이다.

이 글은 클라리온 Volume 57, No.1 (January 4, 2008)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 러 해 전, 그가 필라델피아의 제 10 장로교회(Tenth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였을 때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Donald Grey Barnhouse)는 한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엔가 그는 사탄이 어떤 도시를 점령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어떤 것일까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폭력과 타락으로 어지러운 어떤 공동체를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반하우스가 그린 그림은 좀 다른 것이었다. 모든 술집과 당구장들이 문을 닫고, 외설 포르노가 사라지며, 도시의 거리와 잔디밭은 단정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아무런 욕설도 저주도 존재하지 않는 곳. 아이들은 모두 공손하고 교회들은 주일마다 가득차는 곳. 그러나 그리스도가 설교되지 않는 곳, 그곳을 반하우스는 사탄이 점령한 도시라고 말했다.

사 탄은 예배에서의 권리 즉,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만 무시된다면 교회가 무엇을 가지든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설교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공적 예배 속에서 정규 설교를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고양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와 같은 본문들이었다.

요 한 칼빈, 마르틴 부서,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에 따르면 말씀의 설교는 기독교의 예배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사가 중심에 오게 되고, 대신 설교는 드물어지거나 빈번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임을 종교개혁자들이 깨닫도록 하셨다. 휴즈 올리펀트 올드(Hughes Oliphant Old : 프린스톤 신학연구소 교수-역자주)는 이렇게 말한다.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 행해지는 예전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명백한 성경의 계명들에 대한 상상할 수도 없는 불순종일 수밖에 없었다.”

성경의 명백한 계명

로 마서 10장 17절 외에도 설교에 관한 가장 명확한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도에 적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설교이지 노방전도가 전혀 아님-역자주). 바울은 일반의 성도들에게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말씀 사역자들로 지정된 사람에게 쓴 것이다. 디모데는 오늘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목사와 같은 차원에서의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명령은 명확하다: 너는 성경을 설교해야만 한다!

바 울이 여기서 “전파하라”(preach)고 했을 때의 헬라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적 선포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첫째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의 선포(verbal proclamation)”라는 점이다. 바울의 시대에는 ‘케뤼소’라는 이 단어가 드라마나 공연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또한 이 단어는 문답이나 대화에 사용하는 적도 없었다. 바울이 영두에 두고 있었던 선포란 말씀을 사용하는 독자적 말씀선포를 가리킨다.

게 다가, “권위적인(authoritative)” 문제가 있다. 디모데는 성경말씀의 “사자(herald)”로 불리운다. 나는 이미 케뤼소라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케뤼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케릭스는 “사자”라는 의미이다. 고대 세계에서 사자는 왕이나 고위 관료에 의해 보내졌다. 그는 자신을 보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도록 위임을 받은 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자신의 메시지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받은 메시지만을 나타낸다. 사실 사자가 죽음의 위협 때문에 감히 그 메시지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확신있고, 권위를 가진 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권위적으로 말씀의 선포자로 불리워졌다. 그의 시대에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이는 구약성경을 의미한다. 디모데는 성경을 해설하도록,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설교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그는 영감된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자료들도 사용하도록 허락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디모데와 다른 사도 시대의 설교자들(바울을 포함하여)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뜻(counsel)”(행20:27)을 전파했던 것이다.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라!

오늘날 공적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의 설교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주변에는 또한 외견상으로 개혁의 진영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 성경적 강조점은 공격받고 있다. 수 해 전에 나는 캘거리에 있는 기독교개혁교회 목사(Christian Reformed pastor) 앨버타(Alberta)에 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는 설교본문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심슨가족(the Simpsons)”을 사용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 주요 일간지들에 일종의 신기한 현상(novelty)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교회들에서는 더 이상 신기한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여전히 교회들은 조심스럽고, 질서 있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주석적 설교를 굳게 쥐고 있긴 하지만, 이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다. 나는 필사적으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던 캘리포니아 프레스노(Fresno)에서 만난 한 남자를 기억한다. 인구 60만명의 이 도시에서 릭 워렌의 “목적의 이끄는 삶(The Purpose-Driven Life)”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 뿐이었다고 한다.

말씀 설교에 대한 우리의 강조는 캐나다 개혁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강함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확실히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우리 교회들에 대해 질문하는 지인을 만날 때면,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성경은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진 채로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도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생생하게 그려지고 놀라운 구원자로서 선포된다. 만약 우리 교회들이 외부적으로 더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임을 알려지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설교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분명히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이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필수품이 되었다(필수품이지만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역자주).

우리는 설교를 다룸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인류 평등주의의 시대이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하여 단지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써 설교를 치부하기가 쉽다(설교를 단순히 설교자의 생각으로 보기 쉽다는 뜻-역자주).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성경적 설교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는 한,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것은 제 2 헬베크 신앙고백서에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 나는 때때로 우리가 이 고백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겸손함과(humble), 온순함이(teachable) 필요하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연습들을 통해서 설교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개선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토요일 밤에 더 잘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비록 가끔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정기적이고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표하는 언약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 날에 더 호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덧붙여, 교회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계발하는 것도 가치로운 일이다. 특히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산만해진다. 우리는 설교자가 단어나 개념을 기록한 것, 혹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우리의 생각은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 우리들 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이러한 습관은 교회에서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훗날 그 설교에 대해 참고가 될 영구한 기록이 남게

된다. 이러한 설교 노트들은 당신 자신의 개인 성경공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룹 성경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설 교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더 많이 있다. 이 시리즈 글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설교를 중심에 두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명령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되시기 때문이다. 설교 없는 교회는 교회의 교회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성경적 실재를 굳게 붙들자!

D.G. 반하우스(Barnhouse)에 관하여는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 :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의 저자-역자주)에 의해 다양한 글과 설교들이 인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 “christless Christianity”. Modern Reformation May/June 2007 를 보라. 휴즈 올리펀트 올드(Hughes Oliphant Old)로부터의 인용은 그의 논문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Zurich: Theologischer Verlag, 1975), p184 에서 발췌하였다.